



# KIA 임기영, 5월 이후 KBO 최고 잠수함

도쿄 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발탁된 투수 10명 중 3명이 사이드암 투수다. 고영표(KT), 한현희(키움), 최원준(두산)이 바로 그들로 4월 개막 초반부터 꾸준히 안정감 있는 투구를 펼치며 대표팀에 승선했다.

하지만 5월 이후 로만 보면 KBO리그 최고 사이드암 투수는 국가대표 3인방이 아니다.

KIA 임기영(28)이 사이드암 투수 중 가장 꾸준하고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들어지 못한 투수가 '국대' 성적을 능가하는 반전을 일으키고 있다.

임기영은 올 시즌 14경기에서 2승3패로 승운은 없지만 팀 내 최다 79%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4.20 탈삼진 62개 퀄리티 스타트 8차례를 기록하고 있다. 늘 고비였던 5-6회도 올해는 쉽게 넘어간다. 5회(2.76→.209) 6회(2.93→.156) 피안타율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로 발돋움했다.

4월 첫 3경기에선 1패 평균자책점 10.13으로 부진 끝에 엔트리에 도 잠시 빠지며 고전했다. 하지만 5월 이후 11경기에서 66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3.00으로 이 기간 리그 전체 7위, 국내 3위에 올라 있다. 사이드암 투수 중 1위에 빛

나는. 퀄리티 스타트도 7경기로 고영표, 박세웅(롯데)과 함께 국내 투수 공동 1위. 투구 이닝은 전체 3위, 국내 1위로 5회가 끝나기 전 강판된 경기가 없다.

7일 대전 한화전에도 임기영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타선 지원 미비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7이닝 2피안타 4볼넷 7탈삼진

상 줄였다. 5월 이후 9이닝당 볼넷은 1.77개에 불과하다.

“선발 임기영이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로 긴 이닝을 책임진 게 좋았다”고 칭찬했다. 양현중(텍사스)이 메이저리그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고, 외국인 투수 다니엘 멘덴과 애런 브룩스가 부상으로 동반 이탈

한 상황에서 임기영이 KIA 선발진의 버팀목이 되어줬다.

지난 2012년 한화에서 데뷔한 임기영은 2014년 시즌 후 송은범(LG)의 FA 보상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017년 선발 8승 평균자책점 3.65로 활약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탤었다.

그해 만 24세 이하,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APBC 대표팀에도 선정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뽑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이후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개인 최다 9승을 올렸지만 평균자책점 5.15로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다. 지난 3월 81명의 투수들이 도쿄 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임기영의 이름은 없었다.

그렇게 희망해져던 존재감이 5월 이후 확 살아났다. 지금 임기영은 국내 3인방 부럽지 않다.

## 5월 이후 11경기 66이닝 평균자책 3.00 대활약 올림픽 엔트리 못들었지만 국대 성적 능가 '반전' 양현중·외국인 이탈에 선발진 '든든한 버팀목'

7일 대전 한화전에도 임기영의 위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타선 지원 미비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7이닝 2피안타 4볼넷 7탈삼진

상 줄였다. 5월 이후 9이닝당 볼넷은 1.77개에 불과하다.

“선발 임기영이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로 긴 이닝을 책임진 게 좋았다”고 칭찬했다. 양현중(텍사스)이 메이저리그 꿈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고, 외국인 투수 다니엘 멘덴과 애런 브룩스가 부상으로 동반 이탈

## '코리안 특급' 박찬호, KPGA 투어에 다시 나선다

올해 두 번째 KPGA 투어 참가...야마하 오너스 K오픈 출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24승을 거둔 '코리안 특급' 박찬호(48)가 다시 한 번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찬호는 22일 충남 태안 솔라고CC 솔코스에서 열리는 야마하-오너스 K오픈에 추천 선수로 나선다.

KPGA 코리아투어 규정 제2장 4조 대회 별 추천 선수에 따르면 대회 타이틀 스폰서는 출전 선수 규모 10% 이하로 프로 또는 아마추어 선수를 추천할 수 있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국가 상비군 이상 ▲대한골프협회 주관 전국 규모 대회 5위 이내 입상 경력 보유 ▲공인 핸디캡 3 이하의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박찬호는 지난 4월 대한골프협회로부터 공인 핸디캡 3 이하 증명서를 수령했고 공동 주최사의 추천을 받아 대회에 임하게 됐다.

박찬호의 코리아투어 출전은 통산 4번째, 올해 2번째다. 지난 4월 KPGA 군산CC 오픈에서는 컷탈락했다.

이번 대회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면 8점을 얻고 이글은 5점, 버디는 2점을 받는다. 파를 적어내면 0점으로 점수가 없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하는 -3점으로 처리된다.

스코어에 따라 포인트 차이가 커 아마추어 무대에서 장타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찬호가 어떤 성적을 거둘



지 더욱 관심을 끈다.

## 코로나19, 결국 프로야구까지 멈췄다

NC·두산 선수 확진 여파...1군 확진·격리 선수 50% 이상일 경우 중단기로 매뉴얼 수정

코로나19가 결국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13일부터 KBO리그가 중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부터 18일까지 편성된 2021 KBO리그 30경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순연됐다”고 12일 밝혔다.

KBO는 이날 야구회관에서 사장단 회의인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군 선수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리그 중단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9일 NC 다이노스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0일에도 NC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10일에는 두산 베어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선수들은 경기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수차례 접촉한다. 결국 NC, 두산의 1군 선수를 대다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4일 두산과 경기에서 포수 마스크를 썼던 KIA 타이거즈 포수도 밀접 접촉자로 판명돼 격리에 들어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군 선수의 확진 및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 비율이 각각 68%인 두산과 64%인 NC의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산의 경우 확진 선수 2명이 자가격리 대상 선수가 17명이고, 코칭 스태프가 14명이다. 확진 선수 3명이 나



온 NC는 선수 15명, 코칭스태프 10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또한 타 팀의 잔여경기 역시 형평성 문제로 개최가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방역 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KBO리그는 오는 19일부터 8월9일까지 올림픽 휴식기를 앞두고 있어 미뤄지는 경기는 13~18일까지 팀당 6경기, 총 30경기다. 13~21일 예정된 퓨처스(2군)리그 35경기도 중단된다.

해당 경기들은 추후 편성되고,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즌 720경기를 정상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손봤다.

향후 구단 당 1군 엔트리 기준 선수(코칭스태프 제외) 50% 이상이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2주간 해당 경기를 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년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준비했던 매뉴얼을 입맛에 맞게 바꿨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지 어려워 보인다.

당초 올 시즌을 앞두고 KBO는 코로나19 매뉴얼에서 “1군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제외한 대체 선수로 중단 없이 운영된다”고 명시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이 경기를 하겠다고 KBO에서 먼저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NC와 두산이 2군 선수들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스스

## 여주시청 육상팀, 고성통일 전국육상대회 3개 '패거'

포환던지기 정일우·10,000m 경보 이세하·높이뛰기 김은정 금메달



여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강원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이 대회서 정일우는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18m 32cm을 던져 금메달을 땀고, 이세하는 10,000m 경보에서 49분 41초 50를 기록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김은정은 높이뛰기 종목에서 1m 70cm의 기록을 세우며 금메

달을 획득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얻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여주시 소속의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육상팀은 이 기세를 이어 오는 21일 여수에서 개최하는 2021년 전국실업단체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도전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구자철, 카타르 알 가라파와 결별...K리그 복귀 '고민'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구자철(32)이 카타르 프로축구 알 가라파와 결별했다. 알 가라파 구단은 13일(한국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자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결별 소식을 전했다.

2007년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데뷔한 구자철은 2011년 1월 독일 볼프스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마인츠, 아우크스부르크 등에서 활약한 뒤 2019년 알 가라파로 이적해 중동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자철은 알 가라파에서 통산 43경기를 뛰며 8골을 기록했다.

지난 2020~2021시즌에는 공식전 25경기에서 총 7골을 터트렸다.

자유계약선(FA)인 구자철은 향후 거취를 고민 중이다. K리그로 복귀할 경우 전정범 제주가 우선 순위다.



지난 11일 경기 파주 서원밸리CC에서 열린 '대보 하우스디오픈' FR 우승자 박민지가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KPGA 제공)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를 휩쓸고 있는 박민지(23)가 세계랭킹 14위로 도약했다.

박민지는 1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해 18위보다 4계단 상승한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최고 순위다.

박민지는 지난 11일 끝난 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오픈에서 최종합계 16언더파 200타로 정상을 차지했다.

시즌 중반에 벌써 6번째 우승을 일궈내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다. 우

승금도 이미 11억원을 돌파했다.

시즌 초반 해도 세계랭킹 41위였던 박민지는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14위까지 뛰어 올랐다.

넬리 코르다(미국)는 3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 박민비, 김세영, 김효주가 2~5위로 뒤를 이었다.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클래식에서 우승한 히타오카 나사(일본)는 11위에서 9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뉴스스

## KLPGA '대세' 박민지, 세계랭킹 14위로 경풍